

#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영향분석

장 영 애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 The Effect of Child Rearing Behavior and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Children's Stress

Jang, Young Ae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Child Development,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 rearing behavior and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The subjects were 201 children selected from 2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parents.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children's stress index, the child rearing behavior questionnaire, and the child rearing involvement questionnaire, and was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s gender, grade, and scholastic achievement.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ild's stress and the mother's child rearing behavior had significant correlation, especially the warmth·acceptance behavior of the mother indicated negative high correlation. Also, the child's stress and father's child rearing behavior had significant correlation, especially the rejection·restriction behavior of the father indicated positive high correlation.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ild's stress and the mo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had significant correlation, especially the family activities involvement of the mother indicated negative high correlation. As well, the child's stress and the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had significant correlation, especially the day to day guidance involvement of the father indicated negative high correlation. It was also found that rejection·restriction behavior of the father,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behavior of the father, day to day guidance involvement of the father, family activities involvement of the father, and warmth·acceptance behavior of the mother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s stress.

Key words: child rearing behavior, child rearing involvement, children's stress, mother and father

## I. 서론

스트레스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환경의 요구로부터 인지하는 위협(Lazarus & Folkman 1984)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정서상태로, 인간이 위협이라 인지된 환경으로부터 경험하는 불안, 두려움, 슬픔, 짜증, 분노 등의 불쾌한 정서를 총괄적으로 지칭한다(민하영·유안진 1999). 인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며 출생과 더불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아동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급속한 사회변화와 학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 신체적, 심리적 변화 등으로 아동들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동의 생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하지만, 아직 발달 단계에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과 아동들이 직면하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 성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요구된다(김주연·김정순 1999).

최근 들어 아동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아동의 누적된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및 복지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강조 되면서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한미현·유안진 1996; Dubow et al. 1991). 일상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 설명(Carson et al. 1992)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성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스트레스 특성을 관련변인에 따라 조사 분석하는 일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먼저 아동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김영태 1997; 이종순 1999; 최애숙 1998; 우희정 1997; 이희진 1990)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임미향 1992; 김주연·김정순 1999)도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축적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학업성적은 아동에게 관련된 중요변인이고 아동의 일상생활 및 부모, 교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스트레스에도 관계되는 중요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관련 변인으로 아동의 학년과 성별, 학업 성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스트레스는 단순히 개인의 특성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이종복 1990). 따라서 아동의 단편적인 스트레스 행동만을 연구하는 것 보다는 스트레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요인과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의 성격이나 기질 등 아동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려 노력해 왔다(신은영·김경연 1996; Gamezy 1991). 따라서 아동의 스트레스를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하려는 연구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도현심 1996; 한미현 1993; DuBois et al. 1992). 그러나 스트레스가 환경으로 부터의 요구에 의해 유발됨(Lazarus & Folkman 1984)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 규명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변인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 중 특히 가정환경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중에서도

가정의 분위기 형성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강두원 1989; 이정미 1996; Cohn 1990).

실제로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계된 몇몇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강두원(1989), 이정미(1996)는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은 가정환경과 관계가 있으며, 가정의 지위환경보다는 과정환경과 더 관계가 있다고 했다. 즉,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가 거부적이거나 권위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미(1995)의 연구에서는 거부-통제적인 부모의 자녀가 애정-자율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높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였다. 민하영과 유안진(1999)은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이지 못할 때 더 높아 진다고 했다.

한편, 전통사회에서 부모는 남녀 역할 구분이 뚜렷하며, 아버지는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권력을 행사하며 가족의 안전과 안정을 책임지는 보호자, 사회규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도 하였다.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현대 사회의 가족형태는 핵가족화 되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 되면서 부모의 역할은 변모해 가고 있다.

가족의 구조나 기능이 변화되어 가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전에는 여성인 어머니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아동양육 및 교육에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녀에 대한 제반 문제는 부모의 공동관심사 내지 책임으로 간주되어 가고 있다.

실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다 할지라도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며, 아동의 요구에 대해 아버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amb 1981; Parke & Tinsley 1987).

실제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하여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아버지의 양육행

동,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참여도와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과의 관계(김혜연 1992; 이현숙 1991), 성유형 관념과의 관계(양득주 1988; 최경순 1992; 최한순 1995),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최경순 1992),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김미인·장영애 2007) 등을 다루고 있는데,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엄경순(1993)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 성숙도 및 스트레스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를 관련시켜 분석한 것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됨을 생각할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대변되어 질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스트레스의 주요 설명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년, 성별, 학업성적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아동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들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의 영향을 밝힘으로서 부모와 부모 대상 교육관계자에게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중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 하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년, 성별, 학업성적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201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이다. 본래 27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는데 이중 미회수된 것, 부적절한 것을 제외한 201명의 자료가 본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Children's gender	male	104(51.7)
	female	97(48.3)
Children's grade	4th	68(33.8)
	5th	70(34.8)
	6th	63(31.3)
School attainment	high	55(27.4)
	middle	112(55.7)
	low	34(16.9)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참여도 척도로 이루어진다.

#### 1) 아동 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개발하고, 한미현(1996)이 사용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이다. 본 척도는 아동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

영역, 교사학교영역, 주변환경영역의 6개 하위 영역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부모영역에는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의 행동, 또는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부담감 등이 포함되며, 가정환경영역에는 가정의 경제 상태나 가정 분위기, 가족원 간의 관계 등의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불만이나 심리적인 고통 등이 포함된다. 친구영역에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친구들과의 불만족스런 관계에서 생기는 심리적 반응이 포함되며, 학업영역에는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해서 아동들이 경험하게 되는 긴장이나 초조감, 걱정, 심리적 부담 등이 포함된다. 교사 및 학교영역에는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학생들에 대한 태도, 학교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아동이 느끼는 불만, 짜증 등이 포함되며, 주변환경영역에는 학교나 집 주위의 소음이나 청결문제, 놀이 공간, 교통 문제 등,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불쾌감, 짜증, 불만 등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총 4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alpha = .78$ 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에는 아동의 학년과 성별,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성적의 수준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 2)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박영애(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8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는데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 = .81$ 로 나타났다.

#### 3) 부모의 양육참여도 척도

부모의 양육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경순(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학습지도의 세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아주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양육 참여도 척도의 신뢰도는  $\alpha=.91$ 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20명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일부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과 인천지역의 2개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었는데 각 담임교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7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무응답, 누락된 문항이 있는 질문지,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201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

뢰도 파악을 하기 위해 Cronbach의  $\alpha$ 를 산출하였다. 각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검증,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r을 구하였으며,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분석,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 분석, 아동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아동의 성별, 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아동의

Table 2. Difference in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related variables

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M	t/F	D	M	t/F	D	M	t/F	D	M	t/F	D
Gender	male	12.38	.32		7.92	2.23*		9.82	.25		12.96	.93	
	female	12.29			9.04			9.80			13.10		
Grade	4th	10.33		A	7.63		A	9.79			11.23		A
	5th	12.35	4.02*	AB	7.92	3.83*	A	9.81	.36		13.02	7.37*	B
	6th	14.27		B	10.21		B	9.83			15.14		C
School attainment	high	11.24		A	8.54			9.78			10.72		A
	middle	11.26	3.21*	A	8.56	.43		9.82	.39		13.12	11.41**	B
	low	14.53		B	8.60			9.84			16.21		C
Variables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M	t/F	D	M	t/F	D	M	t/F	D			
Gender	male	9.10	.31		8.61	4.31*		60.72	1.37		63.96		
	female	9.08			10.23			69.36					
Grade	4th	7.81		A	9.79			55.21			57.27		A
	5th	7.97	3.36*	A	9.81	.82		62.72	7.36*	AB	58.13	7.62*	A
	6th	10.17		B	9.78			69.36		B	72.37		B
School attainment	high	9.07			9.80			57.27		A	58.13	7.62*	A
	middle	9.09	.76		9.79	.52		58.13	7.62*	A	72.37		B
	low	9.11			9.81			72.37		B			

\*p<.05, \*\*p<.01

스트레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평균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변인 중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가정환경영역, 주변환경영역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영역과 주변환경영역에서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여아가 가정환경과 주변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학업영역, 교사학교영역, 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먼저 부모영역에서는 6학년 아동이 4학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으며, 가정환경영역과 교사학교영역에서는 6학년 아동이 4학년과 5학년 아동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영역에서는 6학년 아동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은 5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6학년 아동이 4학년 아동보다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다. 즉,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부모영역, 학업영역, 스트레스 총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먼저 부모영역에서는 학업 성적이 낮은 아동이 높거나 중간인 아동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학업영역에서는 성적이 낮은 아동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중간 아동, 성적이 높은 아동 순으로 나타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영역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총점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이 높거나 중간인 아동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2.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간의 관계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적 행동은 아동의 스트레스 중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학업영역, 부모영역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위와 같은 영역의 아동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가정환경영역, 부모영역, 학업영역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가정환경영역, 부모영역, 주변환경영역, 교사학교영역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허용·방임적 일수록 위 영역의 아동 스트레스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 스트레스 총점은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and involvement and children's stress

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Child rearing behavior	warmth · acceptance	-.15*	-.36**	-.29**	-.20**	-.05	-.36**
	rejection · restriction	.26**	.32**	.06	.24**	.07	.17*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24**	.37**	.10	.08	.16*	.21**
Child rearing involvement	family activities	-.23**	-.32**	-.27**	-.08	-.05	-.21**
	day to day guidance	-.07	-.29**	-.08	-.27**	-.23**	.04
	home education	-.26**	-.35**	-.05	.37**	-.16*	-.03
	total	-.22**	-.33**	-.09	.10	-.14*	-.05

\*p<.05, \*\*p<.01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인 상관을, 허용·방임,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아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온정적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아동에게 지나친 제재를 가하거나 거부할 때, 그리고 아동의 요구를 지나치게 받아 주거나 방임을 할 때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참여도는 가정환경영역, 친구영역, 부모영역, 주변환경영역 스트레스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의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 할수록 위 영역의 아동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영역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참여도와만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참여도는 가정환경영역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학업영역, 교사학교 영역스트레스 순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학습지도 참여도는 학업영역과 유일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어머니가 학습지도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결국 아동의 학업영역 스트레스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학습지도 참여도는 가정환경영역, 부모영역, 교사학교영역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양육참여도 총점은

가정환경영역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은 부모영역, 교사학교영역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참여도가 높을 때 위 영역의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 총점은 여가활동 참여도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생활지도 참여도로 역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양육참여도 총점과는 -.28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 3. 이동의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간의 관계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적 행동은 아동 스트레스중 친구영역, 가정환경영역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가 온정·수용적 행동을 보일수록 위 영역의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친구영역, 가정환경영역, 부모영역, 주변환경영역, 교사학교영역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친구영역, 주변환경영역, 교사학교 영역,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아동 스트레스 총점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허용·방임적 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가 거부·제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and involvement and children's stress

Variables	Parent domain	Home environment domain	Friends domain	School achievement domain	Teacher and school domain	Surroundings domain	Total stress
Child rearing behavior	warmth · acceptance	-.11	-.28**	-.41**	-.09	-.06	-.23**
	rejection · restriction	.24**	.28**	.31**	.13	.17*	.41**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17*	.15*	.29**	.10	.21**	.30**
Child rearing involvement	family activities	-.18**	-.19**	-.40**	-.12*	-.23**	-.31**
	day to day guidance	-.09	-.13*	-.46**	-.14*	-.29**	-.49**
	home education	-.17*	-.20**	-.38**	.16*	-.24**	-.38**
	total	-.16*	-.21**	-.43**	-.11*	-.28**	-.37**

\*p<.05, \*\*p<.01

재적 양육행동이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를 어머니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어머니의 경우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온정·수용적 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거부·제재적 행동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경우는 아동을 수용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지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지나친 제재나 아동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중 먼저 여가활동 참여도는 아동의 모든 영역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가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 참여도는 부모 영역을 제외한 모든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학습지도 참여도는 학업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학업 영역스트레스와는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가 학습지도에 많이 참여할수록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는 줄어드나 학업영역 스트레스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총점은 생활지도 참여도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여가활동, 학습지도 참여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참여도 총점과는 -.37의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결과를 어머니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보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특히 스트레스 영역 중 친구영역과 주변환경영역 스트레스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버지가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동이 친구와 잘 지내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주변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적응함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4.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Table 5.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stres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Child-related variables	gender	.22	.08	.14	.06	.07	.04
	grade	2.73	.21**	-.18	-.03	-.12	-.08
	school attainment	.86	-.27**	.33	-.16*	.06	.09
Maternal variables	warmth · acceptance			-.53	-.26**	-.36	-.21**
	rejection · restriction			.38	.07	.26	.06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09	.04	.04	.06
	family activities			-.12	-.23**	-.27	-.19**
	day to day guidance			-.16	-.21**	-.08	-.09
	home education			-.64	.07	-.37	-.04
Paternal variables	warmth · acceptance					-.41	-.09
	rejection · restriction					.62	.27**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49	.24**
	family activities					.26	-.15*
	day to day guidance					-.36	-.23**
	home education					.31	-.06
R <sup>2</sup>	.137		.267		.384		
R <sup>2</sup> 증가량			.130		.117		
F	6.952**		5.876**		4.643**		

\*p<.05, \*\*p<.01



분석하기 위해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의 성별, 학년, 학교성적의 아동 변인군,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변인군,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변인군으로 구분하고, 이들 변인에 대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Model 1은 아동 변인군만을 분석한 것이며, Model 2는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어머니 변인군을 첨가시켰다. Model 3은 아직 영향력이 밝혀지지 않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아버지 변인군을 첨가시켰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아동변인만이 투입되었을 때 아동의 학업성적과 학년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14%정도 설명하고 있었다.

아동 변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여가활동 참여도, 생활지도 참여도 순으로 나타났고 아동 변인 중에서는 학업성적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Model 1의 설명력에 13%정도를 증가시켜 2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어머니, 아버지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킨 Model 3은 아동의 스트레스 총점을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 15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이 38.4%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었다( $F=4.643, p<.01$ ). Model 3의 결과 아버지의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아버지의 생활지도 참여도,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여가활동 참여도, 그리고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 아버지가 아동의 생활지도와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온정·수용의 양육행동을 보이고, 아동의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 할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관련 변인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나 학부모 대상 교육관계자들에게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중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가정환경과 주변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 차이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 이종순(1999), 문금순(1993), 임미향(1992)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학업영역, 교사학교 영역에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학년 아동이 부모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더 많이 받는다는 우희정(199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학업 성적이 낮은 아동이 부모 영역과 학업 영역에서 학업 성적이 높은 아동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는 성적이 낮은 어린이가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는 임미향(1992)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관련 변인에 따라서는 여아가, 고학년 일수록,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수용적 행동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 영역별로 모두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거부·제재적 행동과 허용·방임적 행동은 정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거부·제재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부·통제적인 부모의 자녀가 애정·자율적인 부모의 자녀보다 높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인다는 고영미(1995)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이지 못할 때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민하영과 유안진(199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부분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에 많이 참여 할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육참여도 중 여가활동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고, 어머니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스트레스 영역 중 부모영역과 가정환경영역 스트레스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안의 주축이 되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친근한 부모와 가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허용·방임적 양육행동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가 거부·제재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온정·수용적 행동을 보일 때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행동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아버지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간섭을 안하는 것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주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경우와 같은 결과이며 고영미(1995), 민하영과 유안진(1999)등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아버지는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부분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 아버지가 아동의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하위 변인 중에서는 생활지도 참여도가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경우는 여가활동 참여도가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어머니가 자녀와 여가활동을 많이 함께 하고 아버지가 자녀의 생활지도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변인 중에서는 학년과 학업 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 변인이 첨가되면 어머니 온정·수용 양육행동, 여가활동 참여도, 생활지도 참여도, 아동의 학업성적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동변인, 어머니 변인에 아버지의 변인이 첨가되면, 아버지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아버지 허용·방임 양육행동, 아버지 생활지도 참여도, 어머니 온정·수용 양육행동, 어머니 여가활동 참여도, 아버지 여가활동 참여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변인의 영향력을 사라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보다 아동의 사회 성숙도 및 스트레스에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엄경순(1993)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아버지는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관계되고, 또한 어머니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아버지는 생활지도 참여도와 여가활동 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중요하게 관계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 변인이 포함된 MODEL 1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14%정도 설명했으며, 아동 변인과 어머니 변인이 포함된 MODEL 2는 27%, 아동변인, 어머니 변인, 아버지 변인이 포함된 MODEL 3은 38%정도의 설명력을 나타내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해 아동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및 참여도, 아버지 양육행동 및 참여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동의 스트레스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 경우는 온정·수용적 행동, 허용·방임적 행동, 거부·제재적 행동 순으로 아동의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양육참여도 중에서는 여가활동 참여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는 거부·제재적 행동, 허용·방임적 행동, 온정·수용적 행동 순으로 아동의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양육참여도는 생활지도 참여도, 여가활동 참여도, 학습지도 참여도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아동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변인, 어머니변인, 아버지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거부·제재적 행동, 아버지의 허용·방임적 행동, 아버지의 생활지도 참여도,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행동, 어머니의 여가활동 참여도, 아버지의 여가활동 참여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도시 지역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를 실제 관찰이 아닌 질문지만을 통해 측정했으므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가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들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 이외에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관련 변인들, 특히 다양한 환경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남아와 여아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변인과 아버지 변인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는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참여도와 더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아버지들로 하여금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수록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며, 자녀와의 양적인 상호작용 보다는 질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부-자녀 관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 실시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수행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인·장영애(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379-390.
- 강두원(1989) 가정환경, 학업성취, 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미(1995)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김정순(1999)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52-261.
- 김영대(1997)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연(1992)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학동기 딸의 성취 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2.
- 문금순(1993)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유안진(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학회지* 20(1), 61-76.
- 민하영·유안진(1999)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처행동이 부모-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9), 1-12.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2000)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김경연(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한가정학회지* 34(4), 33-48.
- 양득주(1988)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취학전 아동의 성특성 고정 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경순(199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숙도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1997) 아동기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인문과학* 3, 115-125.
- 이정미(1996)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법 유형.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1992) 유치원과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복(1993) 부모의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순(1999)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수준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1991)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진(1990) 국민학교 아동의 고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향(1992)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수준 실태에 관한 분석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애숙(1998) 초등학교 아동의 심리적 환경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교육발전논집* 20(1), 157-178.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1993) 가정의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3.
-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nd ER, Weisz J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bod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Carson DK, Swanson DM, Cooney MH, Gillum BJ, Cuningham D(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s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hild Study Journal* 22, 273-302.
- Cohen F, Lazarus RS(1983) Coping and adaptation on health and illness. In D. Meadhanic(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s*. New York : Basic Books Inc 608-635.
- Cohn D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162.
- Compas BE(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ren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Compas BE, Malcarne VL, Fondacaro K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uBois DL, Felner RD, Brard S, Adan AM, Evans E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abow EF, Tisak J, Causey D, Hryshko A, Reid G(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Elkind D(1984)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Ebata AT, Moos RH(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Garmezny N(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 459-466.
- Harter S(1990)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New York : John Wiley.
- Lamb ME(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 An integrative over view. In M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Wiley 1-70.
- Lazarus R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Lovallo WR, Pishikin V(1980) Performance of type A(coronary prone) men during and after exposure to uncontrolable noise and task failure.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963-961.

Parke RD, Tinsley BJ(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579-641.

Pikington LR, White J, Matheny KB(1997) Perceived coping resources and psychological birth order in school-aged children. *J. of Adlerian Theory, Research & Practice* 53(1), 42-57.

Ryan-Wenger NM(1992) A taxanomy of children's coping strategies : A step toward theory development.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62, 256-263.